

26-15(통권 1016호) 2026.8.21

경제주평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분석과 전망
: 외형 회복과 제한적 구조 재편

목 차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분석과 전망: 외형 회복과 제한적 구조 재편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분석	2
3. 종합 평가	14
4. 전망	1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경제센터 : 강 성 현 연 구 위 원 (02-2072-6221, shkang@hri.co.kr)
이 해 정 수 석 연 구 위 원 (02-2072-6226,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분석과 전망: 외형 회복과 제한적 구조 재편

■ 개 요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전년동기 대비 19.6% 증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교역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북중 총교역액이 2019년의 98.1% 수준까지 회복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교역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과 수출입 품목구조가 과거의 형태로 복원된 것은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기초로 북중무역의 회복 수준과 수출입 구조 변화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분석

2026년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은 약 15.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1분기에는 수출이, 2분기에는 수입이 교역 확대를 주도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약 11.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7%, 수출액은 약 3.2억 달러로 54.1% 증가하였다. 1분기에는 텡스텐광의 평균 수출단가 급등으로 수출 증가액이 총무역 증가액의 76.5%를 차지한 반면, 2분기에는 식품·생활물자 수입이 확대되면서 수입 증가액의 기여도가 69.5%로 높아졌다. 수출입 상계율은 2025년 상반기 20.0%에서 27.4%로 개선됐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액의 약 3.6배이며, 대중국 무역적자도 약 8.6억 달러로 소폭 확대되었다.

202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54.1%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텡스텐광·가탄제·간이통관 품목 등 소수 품목에 집중돼 수출기반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텡스텐광은 수출증량이 12.5% 감소했음에도 평균 수출단가가 kg당 8.20달러에서 67.61달러로 상승하면서 수출액이 9,135만 달러로 620.8% 증가하였다. 국제 텡스텐 가격과 북한산 평균 수출단가가 함께 급등한 점에서 국제가격 상승이 단가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탄제 수출액은 물량 확대에 힘입어 849만 달러에서 3,345만 달러로 293.8% 증가하며 새로운 산업소재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가발류는 인모제 가발 수출물량이 16.2% 증가했지만 평균 수출단가가 30.5% 하락하면서 수출액은 16.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수출은 '텡스텐광의 가격효과, 가탄제의 물량효과, 가발류의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이 병존했으며, 상위 10개 HS4 품목 비중도 88.5%에 달해 외화획득 기반의 높은 집중도가 지속되었다.

202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식품·생활소비재와 건설·시설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해, 생산설비 확충보다 주민생활과 내수 공급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건설 관련 품목은 약 1.8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고, 식량·식료품은 약 2.6억 달러로 36.5% 증가했으나 주곡보다 육류·수산물·식용유 등 비곡물 식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농업 핵심 투입재는 7.4%, 보건·의료 관련 직접재는 12.0% 감소한 가운데 일부 전문 의료장비는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 부문별 중국산 수입의 역할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수입 감소를 곧바로 북한 내 생산 확대나 수입대체의 성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종합 평가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교역 규모의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반면, 수출 집중과 구조적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불균형한 회복’으로 평가된다. 수출 상위 10개 HS4 품목의 비중은 88.5%에 달한 반면 수입은 32.1%에 그쳐, 수출은 소수 외화획득 품목에 집중되고 수입은 식품·소비재·원부자재·건설재 등으로 분산되는 비대칭적 구조가 이어졌다. 특히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입이 수출의 약 3.6배이고 무역적자도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교역의 외형적 확대를 북한의 외화획득 기반이나 대외지급능력 개선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회복은 팬데믹 이전 무역구조의 단순 복원보다 교역 규모의 정상화와 품목구조의 제한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전망

향후 북중무역은 교역 규모 자체보다 2026년 상반기에 형성된 수출·수입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서는 텅스텐광의 가격효과가 약화된 이후에도 가탄제의 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가발류의 평균 수출단가가 회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텅스텐 가격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식품·소비재·건설재 수입수요가 유지되면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에서는 지방공업공장·병원·주택 등 각종 건설사업이 시설 완공을 넘어 생산·운영 단계로 전환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약품·부품의 조달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보건 분야의 수입 감소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조달로 대체된 결과인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북중무역의 지속가능성은 수출의 가격·물량 효과와 함께 구조적 무역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제3국 거래·해외소득·서비스수입 등 상품무역 밖의 외화획득 기반에 좌우될 전망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사업의 본격화와 중국인 관광의 재개·확대 여부도 관광수입을 통한 외화유입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요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전년동기 대비 19.6% 증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회복 흐름을 이어감

- 북중무역은 2023년 이후 육로·철도 물류의 정상화와 북한의 수입수요 회복을 배경으로 외형적 회복세를 지속

- 2020~2022년 북한의 국경봉쇄와 물류·통관 위축으로 북중무역이 크게 감소했으나, 2023년 이후 화물열차와 육로 운송이 단계적으로 재개
- 2025년 북중 총교역액은 약 27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5% 증가했으며, 2019년 총교역액의 98.1% 수준까지 회복
- 2026년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경 개방 초기의 반등을 넘어 교역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확대되는 흐름을 유지
- 다만 총교역액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과 수출입 품목구조가 과거의 형태로 복원된 것은 구분해 평가할 필요

- 최근 북중 간 고위급 교류와 정치적 소통의 강화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양국은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전략적 소통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2026년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한다는 방침을 확인
- 특히, 2026년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등 분야의 실무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고위급 교류는 점경 통상구 운영, 교통·물류 연결, 관광 및 지방교류 등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치·제도적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본 보고서는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의 회복 수준과 수출입 구조 변화를 점검하고, 주요 특징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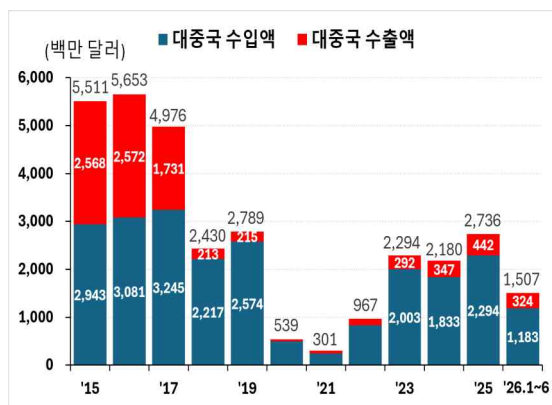
- 세부 분석은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기초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주요 품목의 가격·물량 변동을, 수입은 건설·농업·식품·보건 등 품목군별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함

2.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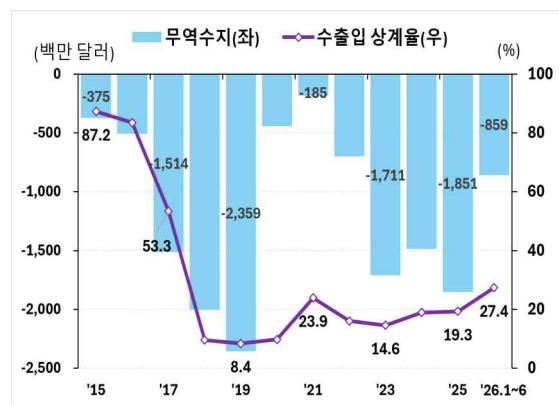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액은 약 15.1억 달러로 전년동기(12.6억 달러)보다 19.6% 증가

-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약 11.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약 3.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4.1% 증가
 - 2025년 상반기 대비 총교역 증가액 247.3백만 달러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33.5백만 달러, 대중국 수출액은 113.8백만 달러 증가하였음
- 2026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입 상계율은 개선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낮은 수출 비중과 수입초과 구조는 지속
 - 수출입 상계율(수출액/수입액)은 2025년 상반기 20.0%에서 2026년 상반기 27.4%로 7.4%p 상승
 - 이는 2026년 상반기에 수입액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하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액의 약 3.6배에 해당
 - 또한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을 약 0.2억 달러 상회하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약 8.4억 달러에서 약 8.6억 달러로 소폭 확대
 - 이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 크게 위축된 대중국 수출이 수입의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상품무역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 추이(연도) > <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수출입 상계율 추이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주 : 2015~2025년은 연간 자료, 2026년은 1~6월 누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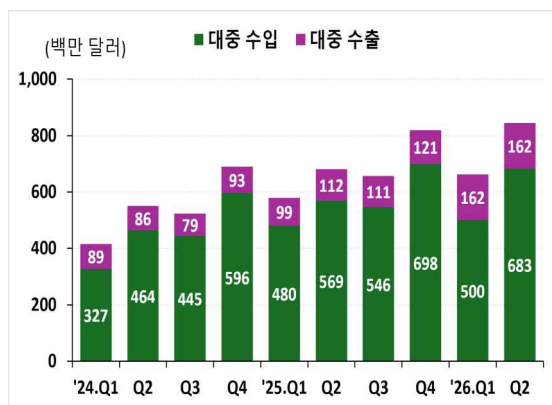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주 : 2015~2025년은 연간 자료, 2026년은 1~6월 누계 자료.

○ 1분기에는 텅스텐광의 평균 수출단가 급등을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분을 주도했으나, 2분기에는 식품·생활물자 등 수입 증가가 확대되면서 총무역 증가의 중심이 수출에서 수입으로 빠르게 이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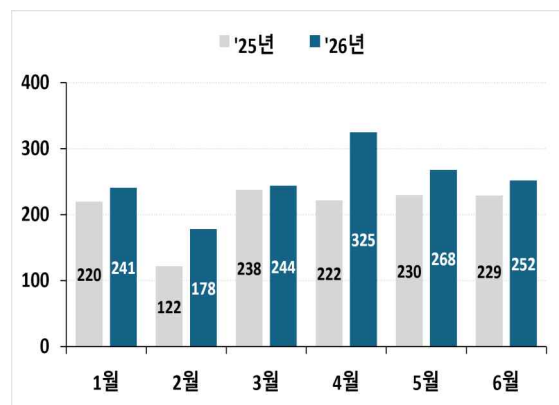
- 1분기 총무역액은 6억 6,235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4% 늘었고, 수출 증가액 6,378만 달러가 총증가액 8,333만 달러의 76.5%를 차지
 - 같은 기간 수입 증가액은 1,955만 달러로 총증가액의 23.5%에 그쳐, 1분기 총무역 확대는 수입보다 수출 증가에 크게 의존한 구조였음
 - 수출 증가는 품목 전반의 물량 확대보다 텅스텐광의 평균 수출단가 상승에 집중돼, 높은 증가율과 달리 수출기반의 광범위한 회복은 제한적이었음
- 2분기 총무역액은 8억 4,453만 달러로 24.1%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액 1억 1,395만 달러가 총증가액의 69.5%를 차지. 소비·생활물자 조달이 상반기 후반의 외형 확대를 주도함
 - 수입 확대는 식품·생활물자와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나타나, 생산설비 확충보다 주민생활과 내수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조달 성격이 강했음
- 월별 총무역액은 1월 2억 4,051만 달러에서 2월 1억 7,817만 달러로 낮아진 뒤 4월 3억 2,485만 달러로 정점을 형성했으나, 5~6월에는 다시 2억 5천만 달러 안팎으로 둔화되었음

< 북한의 對중국 무역액 추이(분기)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 북한의 對중국 무역액 추이(월별)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① 북한의 대중국 수출

○ 202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텅스텐광·가탄제·간이통관 품목(HS98)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전년동기 대비 54.1% 증가

-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025년 상반기 2억 1,026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3억 2,408만 달러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 12.7%를 크게 상회
 -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북중 총교역액 증가분 2억 4,731만 달러 가운데 수출 증가분이 약 46.0%를 차지
 - 대중 1분기 수출은 1억 6,243만 달러, 2분기 수출은 1억 6,164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4.6%, 44.8%씩 증가하였음
 - 월별로는 6월을 제외(-6.3%)한 1~5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을 상회했으며, 특히 3월과 4월 수출 증가액이 각각 약 3,957만 달러와 3,682만 달러로 컸음
- 2026년 상반기 대중 수출 증가는 HS4 기준 텅스텐광, 가탄제 등 기타 화학조제품과 간이통관 저가물품의 수출액 확대가 주도
 - 텅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은 전년동기 대비 7,868만 달러, 기타 화학조제품(HS 3824)은 2,496만 달러, 간이통관 저가물품(HS 9804)은 1,597만 달러 증가
 - 반면 가발·불임머리·가짜수염 등(HS 6704)은 1,731만 달러 감소했으나, 2026년 상반기에도 전체 대중 수출의 27.5%를 차지하며 텅스텐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품목군을 유지
 - 텅스텐광·가발류·기타 화학조제품 등 상위 3개 HS4 품목군이 전체 수출의 66.0%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품목군의 비중은 88.5%로 나타남

< 2026년 상반기 對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HS4 기준)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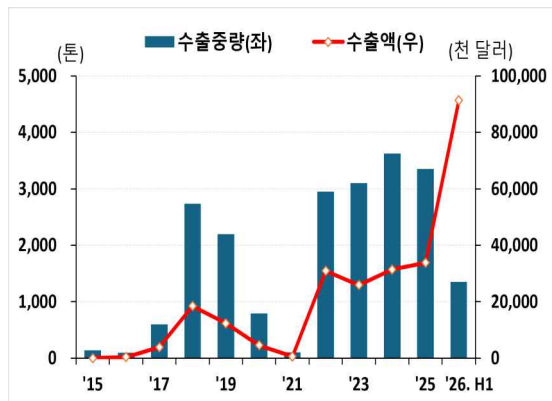
품목명	HS4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증감률
텅스텐광과 그 정광	2611	12.7	91.3	620.8
가발·불임머리·가짜수염 등	6704	106.4	89.1	-16.3
기타 화학조제품(가탄제 포함)	3824	8.5	33.4	293.8
간이통관 저가물품(특수분류)	9804	8.1	24.0	198.0
완성·조립된 시계 무브먼트	9108	10.9	12.9	17.9
합금철	7202	12.1	9.7	-20.1
전기에너지	2716	14.3	9.0	-37.4
물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	8.6	7.5	-12.7
완구·축소모형·퍼즐	9503	1.7	5.5	230.2
교육·전시용 기기·모형	9023	2.4	4.4	85.4
상위 10개 HS4 품목 비중		88.9%	88.5%	-0.4%p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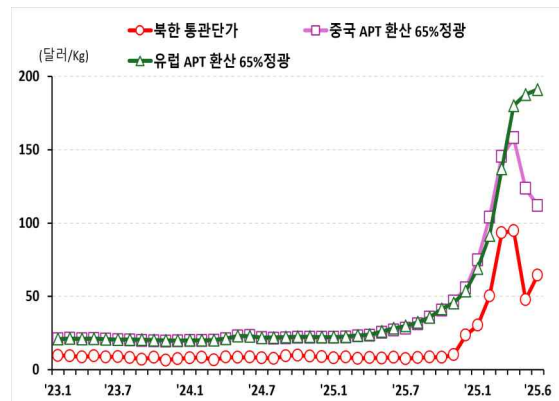
○ (텡스텐광) 2026년 상반기 텡스텐광 수출액은 수출중량이 감소했음에도 평균 수출단가가 약 8.2배로 상승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20.8% 증가한 것이 특징

- 북한의 대중국 텡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0000) 수출액은 2025년 상반기 1,267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9,135만 달러로 7,868만 달러 증가
 - 같은 기간 수출중량은 약 154.5만kg에서 135.1만kg으로 12.5% 감소한 반면,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8.20달러에서 67.61달러로 724.1% 상승
- 2026년 상반기 국제 텡스텐 시장의 주요 가격 지표인 APT(파라텡스텐산암모늄) 가격과 북한산 텡스텐광 평균 수출단가가 함께 급등해, 국제가격 상승이 북한산 수출단가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2026년 상반기 중국 FOB APT 평균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405.8%, 유럽 CIF 로테르담·볼티모어 APT 평균가격은 491.2% 상승
 - 2023년 1월~2026년 6월 북한산 평균 수출단가와 국제 APT 환산가격¹⁾의 월별 수준 상관계수는 중국 0.970, 유럽 0.909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변화율의 상관계수도 각각 0.674와 0.592를 기록해 국제가격과의 동행성이 확인됨
 - 다만 APT는 텡스텐 정광을 화학적으로 정제한 후단계 제품이므로, 북한산 평균 수출단가 상승에는 국제가격뿐 아니라 광석 품위·제품구성·계약 조건과 선적시점도 함께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텡스텐광 수출 추이 > < 북한산 텡스텐광 평균 수출단가 > 및 국제 APT 가격 추이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주 : HS 2611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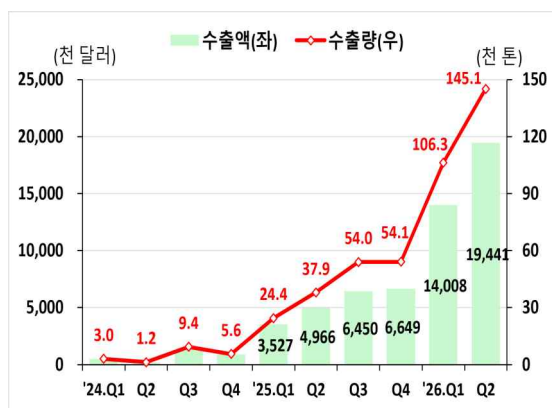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Bloomberg.
주 : 중국·유럽의 APT 88.5% WO₃ 가격을 품위 65% 텡스텐 정광 1kg에 포함된 WO₃ 가치로 환산하였음.

1) 중국·유럽의 APT 88.5% WO₃ 가격을 품위 65% 텡스텐 정광 1kg에 포함된 WO₃ 가치로 환산한 이론가격 (APT 가격(\$/mtu)×0.065)으로, 실제 정광 거래가격이 아니라 국제가격 흐름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임.

○ (가탄제) 2024년부터 증가세를 보인 가탄제²⁾ 수출은 2026년 상반기 물량이 크게 늘면서, 텅스텐광과 함께 북한의 대중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소재 품목으로 자리매김

- 북한의 가탄제(HS 38249930, 増碳剂) 수출액은 2025년 상반기 849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3,345만 달러로 293.8% 증가
 - 가탄제 수출은 2024년 1분기 약 47.7만 달러, 3천 톤 수준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동년 하반기부터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됐으며, 2025년 들어 증가세가 한층 뚜렷해짐
 - 특히 2026년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상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출규모가 확대돼 6월에는 약 766만 달러로 상반기 중 최고 수준을 기록
- 이 같은 흐름은 가탄제 수출이 특정 시기의 일회성 거래에 그치기보다 2024년 이후 지속적인 물량 확대를 거치며 북한의 산업소재 수출 가운데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대중 수출 증가는 텅스텐광의 평균 수출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가탄제에서 나타난 대규모 물량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세관통계만으로 생산능력 확대나 국산화 진전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조달 및 수출동원 기반이 형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

< 북한의 가탄제 수출 추이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주 : HS 38249930 기준.

< 2026년 상반기 가탄제 수출 증가 요인 >

항목	수출량 (천 톤)	평균 수출단가 (달러/kg)	수출액 (백만 달러)
2025년 상반기	62.4	0.136	8.5
2026년 상반기	251.4	0.133	33.4
변화	+303.1%	-2.3%	+293.8%
수출액 변동효과 (백만달러)	물량효과 +25.4	단가효과 -0.5	수출액 증가분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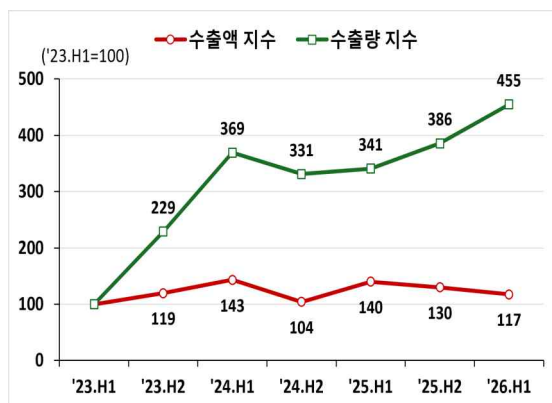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주 : 물량·단가효과는 전기·당기 평균값을
이용해 분해하였음.

2) 가탄제는 제강·주조 과정에서 탄소 함량을 조정·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소계 첨가제임.

○ (가발류) 2026년 상반기 가발류 수출 물량이 유지·증가했음에도 주력 인모제 가발의 평균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음

- 가발류(HS 6704) 수출액은 2025년 상반기 1억 642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8,911만 달러로 16.3% 감소, 2023년 이후 평균 수출단가는 장기 하락세를 지속
 - 가발류는 2026년 상반기 전체 대중 수출의 27.5%를 차지해, 텅스텐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품목군을 유지
 - 핵심 세부품목인 인모제 가발류(HS 67042000)는 수출액이 9,998만 달러에서 8,074만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출물량은 16.2% 증가
 - 즉, kg당 평균 수출단가가 100.36달러에서 69.77달러로 30.5% 하락하면서 물량 증가 효과를 상쇄해, 단가 하락이 수출액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가발류의 세부 물량과 통관구조를 보면, 2026년 상반기 관련 거래금액 감소에도 가발용 가공 인모·재료 반입과 인모제 가발 수출의 실물 물량은 모두 증가
 - 중국산 가공 인모(HS 67030000)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4,097만 달러 감소했으나 수입물량은 14.7% 증가했으며, 핵심 완제품인 인모제 가발류(HS 67042000)의 수출물량도 16.2% 증가
 - 반면 가공 인모의 평균 수입단가는 약 41.9%, 인모제 가발류는 30.5% 하락해, 원료 반입과 완제품 수출의 실물 흐름이 유지·확대됐음에도 관련 거래금액은 감소
 - 따라서 가발류 수출액 감소는 임가공 물량 위축보다 평균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의 가발류 수출액·수출량 지수 추이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주 : HS 6704 기준. 2023년 상반기=100.

> < 가발류 임가공 관련 품목의 출료가공무역 구조

구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변화
인모제 가발류 수출액(백만 달러)	100.0	80.7	-19.2
출료가공무역 비중	99.4%	96.8%	-2.6%p
주요 신고지역	산둥(49.4%), 지린(33.4%), 랴오닝(17.2%)	지린(45.4%), 랴오닝(40.2%), 산둥(14.4%)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주 : 가발용 가공 인모(HS 67030000) 기준.

② 북한의 대중국 수입

- 202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식품·생활소비재와 건축자재, 포장재 등의 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2분기에 집중
-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025년 상반기 10억 4,930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11억 8,280만 달러로 1억 3,350만 달러 증가
 - 1분기 수입액은 4억 9,991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한 반면, 2분기에는 6억 8,289만 달러로 20.0% 증가
 - 상반기 수입 증가액 가운데 1분기 증가분은 1,955만 달러, 2분기 증가분은 1억 1,395만 달러로, 전체 증가분의 85.4%가 2분기에 발생
 - 월별로는 2월과 4월 수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67만 달러와 6,622만 달러 증가한 반면, 3월에는 3,364만 달러 감소해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HS4 기준 가금류·대두유·신발·플라스틱 판재가 증가한 반면 가발용 가공 인모·설탕·일부 합성직물은 감소해, 수입 확대와 품목별 교체가 동시에 진행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HS 0207)은 2,354만 달러, 대두유와 그 분획물(HS 1507)은 1,686만 달러, 고무·플라스틱제 기타 신발(HS 6402)은 1,318만 달러 증가
 - 가발용 가공 인모·모발(HS 6703)은 4,097만 달러, 설탕(HS 1701)은 974만 달러 감소해 주요 증가품목의 효과를 일부 상쇄
 - 수출과 달리 상위 10개 품목 비중은 32.1%로 수입 증가가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기보다 품목군 전반으로 분산된 모습

< 2026년 상반기 對중국 수입 상위 10개 품목(HS4 기준)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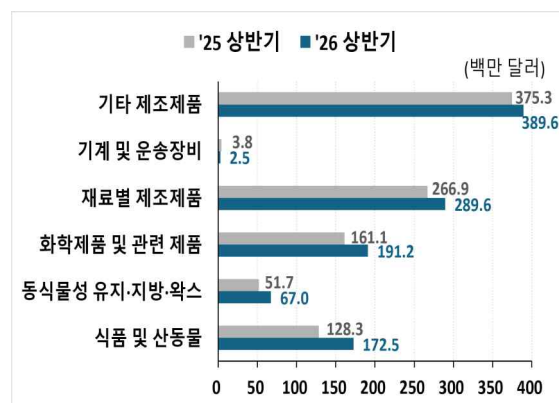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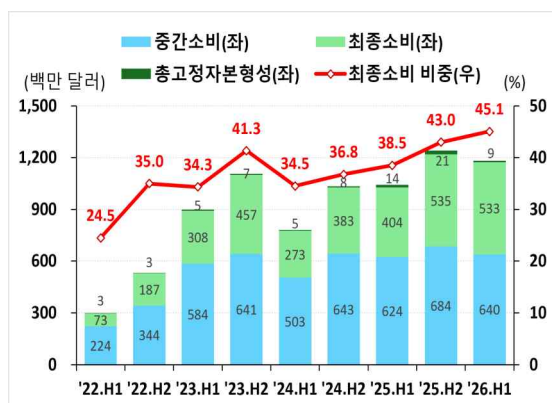
품목명	HS4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증감률
가발용 가공 인모·모발	6703	122.8	81.8	-33.4%
대두유와 그 분획물	1507	47.9	64.8	35.2%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5407	52.3	48.2	-7.9%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0207	11.4	35.0	205.7%
기타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6006	27.1	28.3	4.3%
고무·플라스틱제 기타 신발	6402	13.3	26.5	98.9%
플라스틱 판·시트·필름	3920	16.0	25.9	61.3%
기타 가구와 부분품	9403	25.1	25.4	1.3%
고무제 신발 공기타이어	4011	21.1	24.3	15.1%
도자제 판석·포장용·벽용 타일	6907	15.8	19.2	21.1%
상위 10개 HS4 품목 비중		34.3%	32.1%	-2.2%p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 2026년 상반기 대중 수입은 중간소비용 품목의 규모가 가장 컸지만, 수입 증가분은 식품·생활소비재 등 최종소비용 품목에 집중

- BEC 최종용도 기준으로 중간소비용 품목은 전체 수입의 54.1%를 차지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증가액의 96.4%는 최종소비용 품목에서 발생
 - 중간소비용 수입은 6억 2,399만 달러에서 6억 3,982만 달러로 2.5%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용 수입은 4억 410만 달러에서 5억 3,289만 달러로 31.9% 증가
 - 최종소비용 수입 증가액은 1억 2,875만 달러로 전체 수입 증가액 1억 3,350만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간소비용 증가액은 1,583만 달러에 그침
 - 총고정자본형성용 수입은 1,405만 달러에서 938만 달러로 33.2% 감소하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 머물렀음
- SITC 기준에서도 식품·화학제품·재료별 제조품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기계·운송장비는 감소해, 생활물자와 가공·유통용 투입재가 상반기 수입 확대를 주도
 - 식품 및 산동물은 1억 2,825만 달러에서 1억 7,250만 달러로 34.5%, 화학제품은 1억 6,110만 달러에서 1억 9,123만 달러로 18.7% 증가
 - 재료별 제조품은 2,269만 달러, 동식물성 유지는 1,535만 달러 증가했으며, 기타 제조제품도 3.8% 늘어 2026년 상반기 3억 8,960만 달러로 가장 큰 품목군을 유지
 - 반면 기계·운송장비는 382만 달러에서 254만 달러로 33.9% 감소해, BEC에서 나타난 자본형성용 품목 감소와 함께 생산설비 확충보다 소비·생활물자 조달의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줌

< 북한의 對중국 수입 최종용도별 구성 추이(BEC 기준) > < 북한의 對중국 수입 주요 품목군 비교(SITC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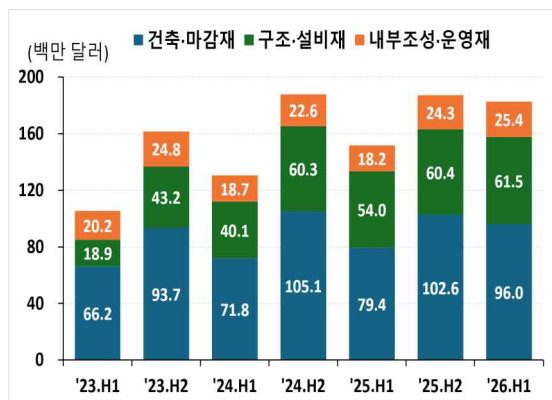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UNSD.

주 : 중국 해관총서의 HS 품목별 무역통계를 UNSD의 HS-BEC Rev.5 및 HS-SITC Rev.4 연계표에 따라 각각 재분류 집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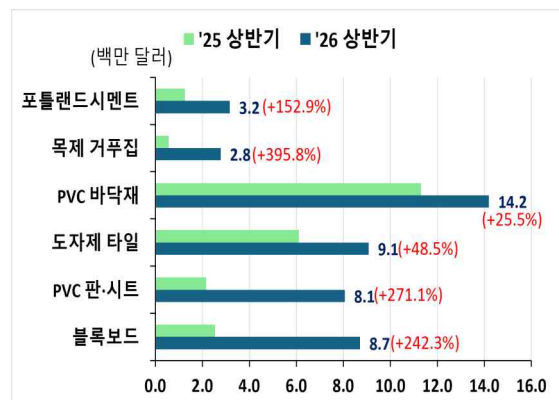
○ (건설) 건설 관련 품목은 2026년 상반기 약 1억 8,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북한 내부의 건설·시설조성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건축·마감재 수입은 9,6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9% 증가했으며, 구조·배관·창호·조명재와 시설 내부조성·운영재도 함께 확대
 - 블록보드·라미네이티드보드(HS 44125200)는 617만 달러, PVC 판·시트(HS 39204900)는 589만 달러, 도자제 타일(HS 69072190)은 296만 달러 증가
 - PVC 바닥재(HS 39181090), 목제 콘크리트 거푸집(HS 44184000), 포트랜드 시멘트(HS 25232900) 등 건축·마감 관련 품목도 증가
- 건축·마감재뿐 아니라 배관·창호·조명, 가구·집기 등 시설의 내부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품목까지 증가해, 수입수요가 기초 건설자재보다 건축 마감 및 시설 완비 단계까지 폭넓게 나타나는 모습
 - 이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 공업시설과 병원·학교·주택 등 각종 건설사업과 맞물려 수입이 늘어나는 흐름이나, 중국 통계에서는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특정 정책사업에 직접 귀속하기는 곤란
 - 또한 건설재 수입 증가가 북한 국내 건재 생산의 부진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기초 건재와 중국산 마감재·설비가 함께 투입되는 보완적 조달구조일 가능성도 존재

< 북한의 건설 기능군별 수입액 추이 > < 2026년 상반기 북한의 건설 관련 주요 증가품목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주 : HS 품목별 무역통계를 건설 관련 기능에 따라 재분류 집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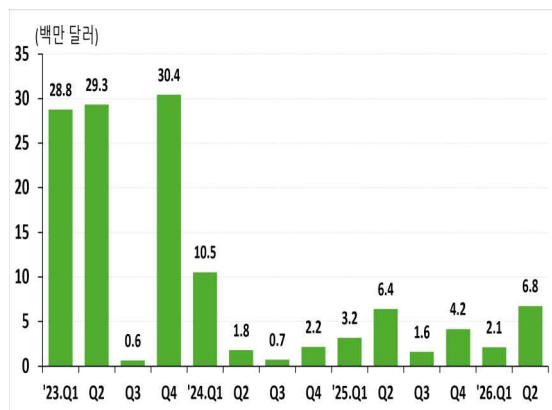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 (농업 투입재) 중국산 농업 투입재 수입은 2023년 상반기의 대규모 비료 반입 이후 크게 감소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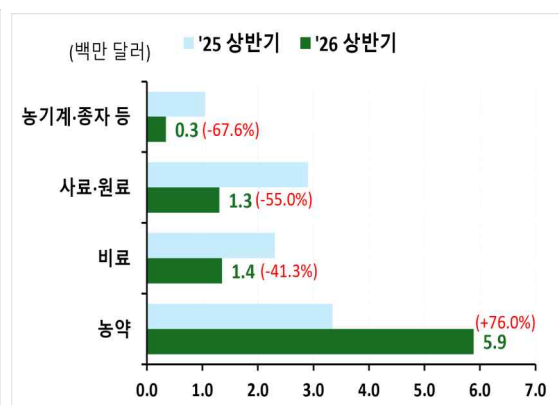
-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등 농업·양곡 핵심 투입재 수입액은 2025년 상반기 960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889만 달러로 7.4% 감소

- 농업 투입재 수입은 2023년 상반기 5,811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4년 상반기 1,236만 달러, 2025년 상반기 960만 달러, 2026년 상반기 889만 달러로 축소
- 2025년 상반기와 2026년 상반기를 비교할 시 농약은 335만 달러에서 589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비료는 23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 사료·사료원료는 290만 달러에서 131만 달러로 감소
- 세부품목에서는 소매용 제초제(HS 38089311)와 요소(HS 31021000)가 각각 175만 달러와 133만 달러 증가한 반면, 인산일암모늄(HS 31054000)과 대두박(HS 23040090)은 각각 174만 달러와 166만 달러 감소
- 이에 따라 2023년의 대규모 비료 반입이 이후 반복되지 않은 것이 최근 흐름의 가장 큰 특징
- 다만 중국산 투입재 감소는 북한 내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 제3국 조달, 재고·조달주기 또는 실제 수요변화 가운데 어느 요인에 기인했는지 중국 해관통계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움

< 북한의 농업 핵심 투입재 수입액 추이 > < 북한의 농업 핵심 투입재 품목군 수입액 변화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주 : 농약(소독제 제외), 비료, 사료·원료, 농기계·종자 등을 재분류 집계하였음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 (식량·식료품) 2026년 상반기 식량·식료품 수입은 약 2억 6,6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6.5% 증가했으며, 주곡보다 육류·수산물·식용유 등의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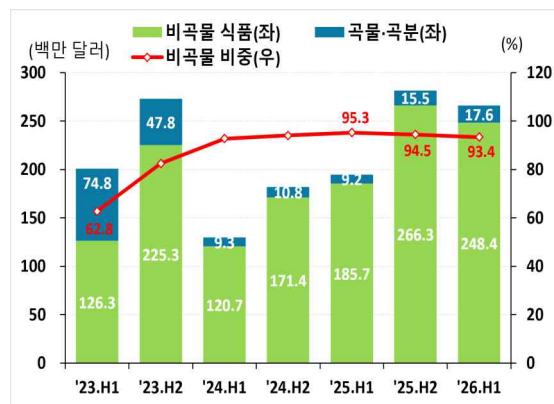
- 식량·식료품 수입은 2025년 상반기 1억 9,490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2억 6,600만 달러로 증가해 최근 하반기 고점에 근접

- 2023~2025년에는 하반기 수입이 상반기보다 많았으나, 2026년 상반기 수입액은 이미 2023년 하반기 2억 7,310만 달러와 2025년 하반기 2억 8,180만 달러에 근접해 상반기부터 식품 반입 강도가 높게 나타남
- 냉동 통오리(HS 02074200)는 2,056만 달러, 대두유(HS 15079000)는 1,662만 달러, 냉동 알래스카 명태(HS 03036700)는 631만 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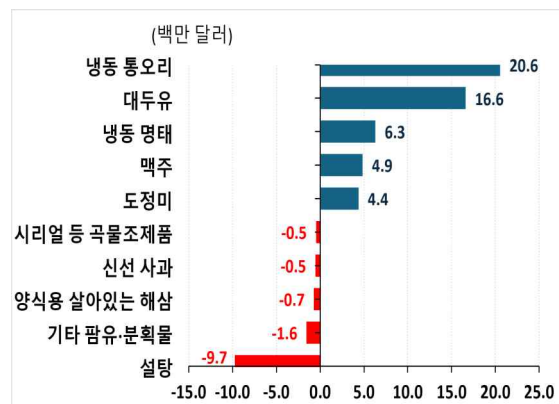
- 따라서 2026년 상반기 식품수입 확대를 주곡 부족에 따른 곡물조달의 증가로 설명하기보다는 육류·수산물·유지류·가공식품 등 비곡물 식품의 반입 확대가 중심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도정미(HS 10063080)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439만 달러 증가했으나, 곡물·곡분 전체 수입액은 2023년 상반기 약 7,483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약 1,762만 달러로 크게 낮아진 상태
- 또한, 설탕(HS 17019910)은 974만 달러 감소했음에도 육류·수산물·대두유 등의 증가가 이를 크게 상회해, 2026년 식품수입 증가는 주곡의 양적 확보 보다는 식품 소비·공급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이 보다 뚜렷해진 모습

< 식량·식료품 수입액 및 구성 추이 > < 2026년 상반기 주요 식품 수입 증감액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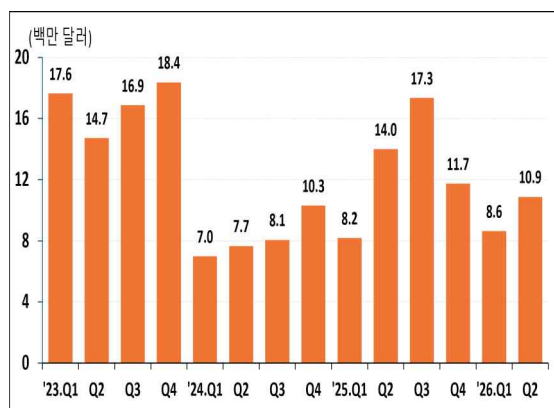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주 : 증감액 상위 5위. 전년동기 대비 기준.

○ (보건·의료) 2026년 상반기 보건·의료 관련 직접재 수입은 약 1,95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0% 감소했으나, 일부 전문 의료장비의 반입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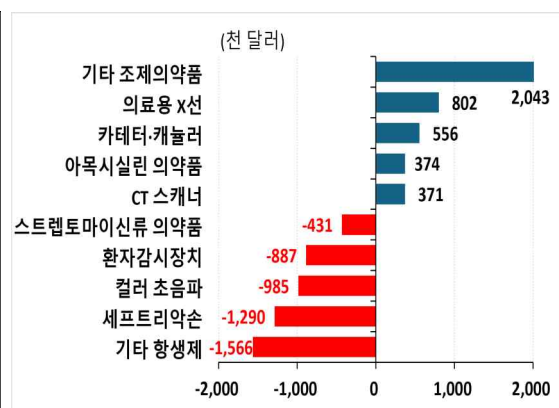
- 보건·의료 수입은 2025년 상반기 약 2,218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1,951만 달러로 감소했으며, 품목별로는 상반기된 흐름이 나타남
 - 의료용 X선 장비(HS 90221400)는 약 80만 달러, 카테터·캐놀러 등(HS 90183900)은 56만 달러, CT 스캐너(HS 90221200)는 37만 달러 증가
 - 반면 기타 항생제 의약품(HS 30042090)과 세프트리악손 의약품(HS 30042017)은 각각 약 157만 달러와 129만 달러 감소
- 보건 관련 수입은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하락 추세보다는 의약품 확보와 병원 개원·장비교체 시기에 따라 반기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
 -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의 총액 감소를 보건정책 후퇴나 의료부문 투자 축소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움
 - 특히 총액 감소와 일부 전문 의료장비 증가가 병존해, 중국으로부터 모든 보건제품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필요한 품목을 선택적으로 조달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는 보건·의료 수입의 변화가 전체 규모의 증감보다 의약품·소모품과 전문 의료장비 사이의 품목구성 변화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보건·의료 관련 품목 수입액 추이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 < 2026년 상반기 주요 보건·의료 품목 수입 증감액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주 : 증감액 상위 5위. 전년동기 대비 기준.

3. 종합 평가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형적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가운데, 수출입 품목구조는 과거로 단순 복귀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는 모습
 - 북중 총무역액은 2025년에 2019년의 98.1% 수준까지 회복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9.6% 증가해 교역 정상화 흐름이 지속
 - 다만 수출 상위 10개 HS4 품목 비중은 88.5%인 반면 수입은 32.1%에 그쳐, 수출은 소수 외화획득 품목에 집중되고 수입은 식품·소비재·원부자재·건설재 등으로 분산되는 비대칭적 구조가 지속
 - 따라서 현재의 회복은 팬데믹 이전 무역구조의 복원보다는 교역 규모의 정상화와 품목구조의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평가할 필요
 - 수출은 품목별 증가요인이 서로 달라, 높은 수출 증가율을 생산·수출능력 전반의 확대와 동일시하기 어려움
 - 텅스텐광은 물량 감소에도 국제가격과 연동된 단가 급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가탄제는 2024년 이후 물량 확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소재 수출품목으로 부상
 - 가발류는 수출물량이 확대됐음에도 평균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해, 2026년 상반기 수출은 ‘텅스텐의 가격효과-가탄제의 물량효과-가발류의 물량 확대와 단가 하락’이 병존하는 구조로 나타남
 - 수입에서는 제9차 당대회 전후 북한이 강조해 온 주민생활·지방개발·보건 등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품목이 확대됐지만, 이를 전면적인 생산능력 확충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식량·식료품과 건설·시설 관련 품목의 수입이 확대된 반면 농업 투입재와 충고정자본형성용 품목은 낮은 수준을 보였고, 보건·의료 역시 총액 감소 속 일부 전문장비의 선택적 반입이 나타남
 - 이는 중국산 소비·생활·건설재의 조달 확대와 일부 생산 투입재의 국내 생산·제3국 조달 또는 선택적 수입이 병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향후 지방공업공장·병원 등 신규 시설의 건설이 생산설비·부품·원료·의약품의 지속적인 조달로 이어지는지가 정책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될 전망
- 또한, 대중 수출 증가에도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는 지속되고 있어, 북중 상품무역의 외형 확대와 북한의 대외지급능력을 구분해서 볼 필요
 - 수출입 상계율은 2025년 상반기 20.0%에서 2026년 상반기 27.4%로 개선됐지만 수입은 여전히 수출의 약 3.6배이고, 대중 무역적자도 약 8.6억 달러로 확대
 - 따라서 중국과의 상품무역만으로는 대규모 수입을 장기간 유지하는 외화조달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러시아 등 제3국과의 거래, 해외소득·서비스수입, 비공식 거래 등 여타 외화조달 경로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결국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의 회복은 교역 규모의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반면 수출 집중도와 구조적 무역적자라는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는 ‘불균형한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26년 상반기 북중무역 종합 평가 >

구분	주요 관측결과	종합 평가
외형적 회복	- 총무역액 +19.6%(전년동기 대비) * 2025년 연간 총무역액은 2019년의 98.1% 수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역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전
수출구조	- 텅스텐광·가탄제 증가, 가발류 물량 확대 속 수출액 감소	- 가격효과·물량효과·임가공이 병존하는 외화획득 구조
수입구조	- 최종소비용 품목이 수입 순증가의 96.4% 차지	- 생산설비보다 식품·생활·건설·시설 수요의 영향이 강함
정책연계	- 건설재·식품 수입 확대, 농업 투입재 수입 감소, 보건은 선택적 조달	- 정책부문별로 중국산 수입의 역할이 차별화
수출입 불균형	- 상계율 27.4%로 개선됐으나 무역적자 약 8.6억 달러	- 수출 회복에도 구조적인 대중 수입초과 지속
핵심 제약	- 수출은 소수품목·가격변동에 민감, 수입수요는 광범위	- 외형 회복에 비해 외화획득 기반의 안정성은 제한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4. 전망

○ 하반기 이후 북중무역은 교역 규모 자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지보다, 2026년 상반기에 형성된 수출·수입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주목하여 관찰할 필요

- 수출에서는 텅스텐광의 가격효과가 약화된 이후에도 가탄제·가발류 등 다른 품목이 외화획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

· 2026년 상반기 텅스텐광 수출 증가는 물량보다 평균 수출단가 상승의 영향이 컸던 만큼,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물량에 큰 변화가 없어도 수출액이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

· 반대로 가탄제는 2024년 이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거래량이 유지될 경우 텅스텐 가격변동을 일부 보완하는 산업소재 수출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 가발류는 수출물량 확대에도 평균 수출단가가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물량 유지와 단가 회복 여부가 외화획득 규모를 좌우할 전망

· 따라서 향후 수출은 단순 총액보다 ① 텅스텐의 국제가격과 수출물량 분리, ② 가탄제의 물량 증가 지속 여부, ③ 가발류의 수출물량 유지 및 평균 수출단가 회복 여부를 함께 추적할 필요성 존재

- 수입에서는 최근 확대된 지방공업·보건·주택 등 각종 건설사업이 ‘건설·완공 단계’에서 실제 ‘생산·운영 단계’로 넘어가느냐가 주요 관찰대상이 될 전망

· 현재는 건축·마감재와 시설 내부조성용 품목이 확대되는 반면, 대북제재로 총고정자본형성용 수입과 일부 생산설비는 낮은 수준을 보여, 각종 시설의 외형적 확충이 실제 생산능력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

· 향후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소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입재 수입이 증가한다면, 최근 건설사업이 단순한 시설 완공을 넘어 생산·서비스 공급능력 확대로 연결되는 하나의 신호로 평가할 수 있음

· 반대로 건설재 수입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 투입재 반입이 정체된다면, 시설 확충과 실제 가동능력 사이의 괴리가 제약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

- 농업·보건 분야 역시 중국산 수입 감소가 국내 생산 확대나 제3국 조달로 대체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 투입재 부족을 반영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
-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외화획득원의 지속 여부도 북중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를 좌우할 핵심 변수
 - 2026년 상반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대중 무역적자는 약 8.6억 달러에 달해, 현재의 수입규모를 유지하려면 대중 상품수출 이외의 외화 유입이 지속될 필요
 - 특히 텅스텐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식품·소비재·건설재 수입수요가 유지될 경우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해외소득과 서비스수입 등 상품무역 밖의 외화획득 여건이 북한의 수입여력을 얼마나 보완하는지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
 - 아울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사업의 본격화와 중국인 관광의 재개·확대 여부도 향후 외화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하면 향후 북중무역은 ① 수출의 가격효과와 물량효과, ② 건설사업의 운영단계 전환, ③ 농업·보건 분야의 수입대체 여부, ④ 구조적 무역적자를 뒷받침하는 외화획득 기반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 **HRI**